

北의 성보 불수록 통일염원 '새록새록'



금강산 금강암 4사자 3층석탑(북한 국보급 4호)
화엄사 4사자 3층석탑을 연상시키는 고려시대의 석탑. 천년의 세월을 금강산의 절경과 어울리며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다. <동아일보 10월4일자>



개성 화장사 사리탑 (북한 보물급 34호)
반구형의 몸통 위에 두 겹의 안팎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그위에 33천의 우주를 상징화한 원만형 돌이 얹혀 있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고려 말(14세기)의 고승 지공화상의 사리탑으로 추정. <동아일보 10월6일자>

한국의 불상 가운데 그 유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상세트·금강산의 절경속에서 1천여년의 중상을 이겨낸 금강암 4사자3층석탑·'영강7년'이란 제작연대(551년)를 분명히 기재하고 있는 고구려 금동불상의 공개 등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내 성보문화재들이 최근 언론에 연이어 공개돼 그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제3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문화재 사진들은 그동안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들만 보아오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줘 학계와 불교계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충식 동국대교수는 "북한내의 문화재들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입수,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의 자료보다 선명할 뿐만 아니라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상 세트 등 새로운 자료가 있어 성보문화재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제3자를 거쳐 확인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남북한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조사를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반세기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북한소재 성보문화재들의 컬러사진을 소개, 민족통일의 염원을 천만여 불자와 함께 기원해 본다.



고구려 금동불상 광배
뒷면 명문 오른쪽에 '영강7년(水康七年)'이라는 제작연대(551년)가 분명히 적혀 있어 고구려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국일보 10월7일자>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과 지장보살이 짝을 이루고 있다. 본존은 목계가 길고 보색하며, 관음은 유희좌를 취하고 있는 등 원(元)의 라미계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10월7일자>



금동인왕상투각관 평양 평천동에서 영강7년 명 관배와 함께 출토 칼과 창을 든 인왕상의 모습과 날카롭고 동적인 선에는 웅충한 기상과 힘이 넘치는 고구려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일보 10월7일자>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선재동자상 (화엄경) '입법계품' 중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 가운데 하나인 관음보살을 만나 진리를 묻고 있는 모습. 고려말회 '수월관음도'를 조각으로 표현한 한국 불상 중 유일한 예로 고려말의 작품이다. 주변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준다. <조선일보 10월7일자>



해주다라니석당(북한 국보급 25호)
고려 불교미술의 뛰어난 조형미와 정신적 깊이를 함께 담고 있다. 평북 용천군 성동리 다라니석당과 쌍벽을 이루는 귀중한 문화재. 국내에는 그 유례가 없다. <동아일보 10월5일자>

불교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

불교TV방송주식공모

거룩한 부처님 전에 귀의 하옵고, 불교텔레비전의 가족 모두는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은 지구촌 불자가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맑고 건강한 방송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경영의 합리화로 독자경영의 이익을 불자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불자주식공모를 실시합니다. 불교텔레비전이 건설해 나갈 큰 불사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1997년(불기 2541년) 10월1일~12월15일

공모방법 사찰 및 불교단체에 비치된 지로용지 또는 전국은행과 농·수·축협 및 우체국에서 지로번호 7614677번으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청약단위 20주 이상 (10만원)
* 불교텔레비전 후원회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 3270-3300, 3347

btn 불교TV 32